

조약, 장막, 배교, 하나님의 용서

검토

d. ANE 속국 조약과 시나이 언약 2. 신명기의 문학적 장르 ㄱ. 조약 문서

변경 금지

우리는 d항, “고대 근동의 속국 조약과 시나이 언약, 그 조약들과 성경적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약 언약 비유가 신명기의 기원이 모세 시대라는 연대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한 귀하의 인용문 28페이지에 있는 Meredith Kline의 논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29쪽, 단락 c,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Kline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와 같은 조약은 본질적으로 불가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봉인된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맹세의 신들의 눈 아래 성소에 그러한 조약을 기탁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일부 히타이트 조약과 성서 자료에는 조약의 어떠한 변경도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수정이나 변경 없이 온전한 문서로 전달되었을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추가, 추가 및 변경이 있는 이러한 종류의 실행 가능하고 잠정적인 원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비평 이론은 이 장르의 문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클라인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긴 논의가 그 책인 *대왕조약* 에서 29페이지의 단락 D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연대와 구성에 대한 유추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 전체와 정반대입니다. 현재의 추측에 따르면 신명기는 융통성 있는 전통을 확장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장 관련성이 높은 증거는 신명기와 같은 문서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위해 준비되었다면 즉시 수정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들은 가장 구체적이고 엄숙하고 엄격한 제재에 의해 모든 변경, 삭제 및 확장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힘은 신명기 조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봉인되고 인가된 언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에 대해 갖게 될 경외심에 의해 강화됩니다 .

비. Josiah Date(BC 621)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여전히 주장

이제 양식 비평 데이터는 신명기 내의 이것저것 요소뿐만 아니라 신명기 조약의 무결성에 대한 고대의 인식을 강요하므로 기원전 7세기경에 책의 최종판에 대한 어떤 끈질긴 주장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 비평에서 더 이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흔적적인 가설.” 이제 그는 1960년대에 *위대한 왕의 조약을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줄에

주목하십시오. “현대 고등 비평의 악명 높은 전통주의가 더 이상 신명기 배의 본향으로 다시 향해하는 것을 막을 만큼 관성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까?” 즉, 자신이 속한 모자이크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는 이것을 60년대에 썼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연구를 가지고 있고 신명기는 여전히 요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종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모세의 저작에 대한 꽤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유추로 그런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신명기는 그것이 주장하는 곳이며 모세 시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일치합니다.

씨. 조약의 의무 따라서 신명기의 날짜와 특성에 대한 조약-언약 유추의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인용문 31쪽을 펴십시오. 웬햄 구약성경의 은혜와 율법의 문제로 돌아가서 조약-언약 유추의 문제를 구약성서의 은혜와 율법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그는 “시나이 언약은 왕의 허락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봉신의 의무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법적 형식인 봉신 조약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법은 은혜롭고 신성한 주도권의 맥락에서 설정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강화합니다. 율법의 언약 설정은 구원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 조약 형식 자, 계약에 법을 적용하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과 언약을 세우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십계명 자체는 출애굽에 대해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그리고 역사의 서막, 대왕 종주국의 신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규약 섹션 앞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는 언약 형식의 구조는 율법이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1-3장은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규정이 부과되기 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혹자는 신명기 1-11장이 1-3장이 아닌 역사적 서막이고

규정이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과 절대성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완고한

백성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는

주된 동기입니다 . 신명기 4-11장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열렬한 간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호소함으로써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자형. 기본 규정으로서의 쉼마

이제 4-11장 중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쉼마를 연습니다.

그것은 기본 규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충성의 기본 의무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세한 규정은 12장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모든 규례는 이러하니라” 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시나이 언약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성막 건축의 방향 - 출애굽기 25:1

계속해서 3, “시나이 산에서 주신 추가적인 세부 지시 사항 - 출애굽기 24:9-31:18” 에는 다섯 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하위 항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지만 몇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지침 - 출애굽기 25:1”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4장에서 당신은 언약의 비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 다음으로 기초가 되는 법은 언약서와 비준서입니다. 바로 다음은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세 장에 걸쳐 있는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입니다. 35-40장에 이르면 성막의 실제 건물과 설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 율법과 언약서를 주신 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아주 일찍 언급한 것처럼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될 것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될 성막입니다. 당신은 그 장들을 읽을 수 있고, 당신은 재료, 다양한 가구, 치수,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독서는 아닙니다. 성막의 심리적 의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32페이지의 인용문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Motyer가 말하는 내용이 성막 건설에 대한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2쪽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로 내려가십시오. 먼저 29장 44절을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성막은 언약의 눈에 보이는 초점입니다 -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은 구속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느니라 성막과 관련된 모든 지루한 세부 사항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 프로그램의 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출애굽기 이야기에 통합되어 있으며 그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관점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부 사항에 빠져들지만 이 태버내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속의 절정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Moty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정이었고, 이것은 실행 중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그는 영국인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지에 오십니다” , 10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Downing Street 10번지는 총리 관저입니다 . “하나님이 10번에 오십니다 - 다른 모든 천막들 사이에 그의 천막,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 출애굽기 말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35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읽습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옆집이지만 이웃이 아닙니다.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당신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 많은 인간에 대한 이

질문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막의 의미이고, “성막 건축의 방향”입니다.

비. 신권에 대한 지시 - 출애굽기 28:1-30:38 ㄷ.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일꾼들 - 출애굽기 31:1-11 하위 항목 b는 “제사장 직분을 위한 지침 - 출애굽기 28:1-30:38”입니다. 나는 그 자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c는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일꾼들 - 출애굽기 31:1-11”, 즉 성막 건축을 위한 일꾼들입니다. 나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논평하고 싶습니다. 3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택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여 모든 일에 지혜와 지식을 주게 하여 금, 은, 놋으로 정교하게 디자인하며 돌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패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니 장인 정신.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를 돕게 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모든 장인들에게 기술을 주었노라.’” 예술적인 디자인과 장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일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결의 역사나 영적인 일과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넓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은 이 사람들이 예술적 디자인과 장인 정신에서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그것이 구약의 이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막을 짓는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일꾼들을 공급하십니다.

다. 안식일은 강조된다 - 출애굽기 31:12-17

d는 “안식일을 강조한다 - 출애굽기 31:12-17.” 입니다. 해야 할 일이다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되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거룩하니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 ’ 그것은 엄중한 형벌이니라. 옛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옛세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쉬시고 쉬셨느니라.” ’ 그러므로 해야 할 모든 일과 관련하여 안식일 준수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제공된 만나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18:16에서 다시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날에 두 배로 취하여 안식일에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본법에 이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안식일은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 법은 그 기본법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 준수에는 의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조직에서 영적인 몸으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신약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과 주일의 첫날을 구두로 구별합니다. 전환 의식에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을 쉬고 주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을 별도로 정해야 하며, 그 날이 단지 일주일 중 다른 날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했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7일 중 하루를 예배에 바치는 것을 강조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슈퍼볼 선데이가 되었습니다. 매우 슬프습니다. 온 나라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제가 반드시 그것을 노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구약성경 자료에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 즉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차형.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 - 출애굽기 31:18 그런 다음 e는 “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 - 출애굽기 31:18” 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그에게 주시니” 지금, 당신은 그들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판을 부수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34장 1절을 보면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내라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위에 쓰리라'” 그리고 이 34장의 끝으로 가면 “ 모세가 4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시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 곧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시니라”(28절) 보시다시피, 기본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배교의 여파로 그 판이 파괴되었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몇 개의 판을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판에 첫 번째 판에 있는 말, 즉 그 기본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4. 금송아지 - 출애굽기 32:1-35:3 그것은 4, “금송아지 - 출애굽기 32:1-35 :3”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 이르되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고 했습니다. :1은 실제로 24:18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장에서 당신은 언약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24장 18절입니다. 그는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고, 밤낮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24:18 사이에 성막에 대한 자료와 다른 법적 자료를 얻습니다. 그러나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 이르되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장 이전의 자료, 즉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우리는 모세가 성막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지시를 받고 있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32:1에 도달하면 동시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정상에 있고 백성은 아래에 있고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1.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배교 - 출애굽기 32:1-6 그러므로 4절 아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배교 - 출애굽기 32:1-6” 입니다. 나는 그 구절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떠난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온 백성이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건네주는 것을 가져다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부어 만든 다음 연장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 이것들이 너의 신들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이스라엘.' 아론이 이를 보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께 명절이니라 하니라 이튿날 백성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이 더 많은 계시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얻습니다 . 제 생각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내일 여호와께 절기가 있으리라” 는 5절의 진술을 근거로 볼 때 이것은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결합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송아지 또는 황소의 이미지로.

1. 고고학적 유사성 슬라이드 29에는 폭풍의 신 Hadad의 사진이 있습니다

. 또는 그의 손에 갈래 번개가 있는 황소의 뒷면에 있는 Adad, 그것은 BC 8 세기의 것입니다. 송아지가 받침대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훼를 위한 받침대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송아지나 황소로 야훼를 상징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송아지나 황소는 다산과 힘의 힘의 상징이었으므로 그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야훼를 자연신으로 격하시키고 야훼를 가나안 신과 동일시하게 될 것입니다.

2. 제2 계명 의 위반

페이지 하단 32페이지 인용문을 보면 Charles Hodge의 *조직신학* 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와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계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그리고 Hodge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상장을 원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였음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이 다른 신을 채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분의 눈에 보이는 상장을 숭배하는 척하는 데 있었습니다.

”

이제 호지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계명보다 두 번째 계명을

더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이 다른 신을 경배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계명의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산 위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게 하려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건축을 통해서입니다. 성막에 거하십시오. 산 아래 사람들 사이에서 이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으로 신성한 수단을 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 고 했습니다.

비.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 - 출애굽기 32:7-14 음,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배교였습니다. 하위 포인트 b는 “모세의 첫 번째 중재 - 출애굽기 32:7-14”입니다. 7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영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다시 장면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신속히 저버렸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으로 주조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절하고 제사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악한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절시키려 하셨나이까 당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친히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고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대명사의 스위치를 눈치채셨나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집트인들은 왜 말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몇 가지 다른 주장을 합니다.

1. 첫 번째 중보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하는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0절 끝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중재자의 반응입니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영예를 무시하고,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어라”, 즉 이 백성을 위해 중재하지 말라 “내 분노가 그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그는 주님께 “당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는 이유를 묻고는 백성을 위해 중재하면서 세 가지 주장을 사용합니다. 11절에서 그의 첫 번째 논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으니 그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2. 두 번째 중보기도 논증 두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말할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 논거는 실제로 주님 자신의 명예가 위태로워지고 애굽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하여 산에서 죽이려 하여… 당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전의 약속에 근거하여 논증합니다 . 그것은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 ’

3. 하나님이 돌이키시다(nhm)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린 후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가 위협한 재앙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세에게 제안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장의 그 진술은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33페이지의 마빈 월슨과 TWOT 에서 히브리어 어근인 *나함* (*naham*)에 대한 논의를 보십시오 .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네 맹렬한 노를 그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그 ‘네가 누그러지다’ 가 *나함 이다* . 킹제임스 성경은 “회개하고 재앙을 내리지 말라” 고 번역한 다음 14장에서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다” , 때로는 “회개하다” 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월슨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인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실 38개 중에 3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 *돌이키다* ’ (죄에서 하나님께로)를 의미하는 슈브입니다.

4. 하나님 진술의 대조 불변성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고 알려 줍니다. 즉, 그분이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을 누그러뜨리거나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한 언어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입증하는 특정 구절과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한 그 장의 35절과 반대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10:4). 여기 월슨 *of*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 Anthropopathism은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말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긴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제한되고 지상적이고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이 그가 행하기로 계획하신 심판이나 '악' 을 '회개' 하셨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예레미야 18:7-10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예언(메시아에 대한 예언 제외)이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상기시켜 줍니다.” 잠시 후에 예레미야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J Heschel은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아주 좋은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레미야 18장과 인간의 반응에 근거한 하나님의 돌이키심 예레미야 18장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6. 예레미야 18장 처음 여섯 구절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지켜본 이야기를 말하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도공처럼?’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리고 7-10절을 주목하십시오. ‘엎드러지고 멸망하고 만일 내가 경고한 그 나라가 그 악을 회개하면’ ’ 그것은 슈브 *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하려고 하던 선을 돌이켜 생각하리라’ ”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8:7-10의 원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2.

6. 사무엘상 15장: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뉘우침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은 타당하지만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관한 불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격은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일종의 운명론적이고 정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회개할 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는 누그러집니다. 그의 백성이 그에게 기도할 때 그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여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당하는 장이며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한탄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슬프다”는 왕은 나함 입니다 . 야고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노라”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으나 그가 다시는 사울에게 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근심하사 [그는 *나함 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1절과 35절에서 주님이 “나를 뉘우치는구나” 또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한탄하노라”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 당신의 이웃 곧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그는 *나함입니다*] .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나함*] 마음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11절과 35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회개하신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29절에는 주님이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으신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무슨인가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치나요? 쉽지는 않지만 11과 35의 언어는 인간의 이해에 적응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류학적 언어입니다. 반면에 29에서는 신성한 본성과 목적의 불변성을 설명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둘은 궁극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7. 심판(3x)과 무죄/유예(35x)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개

이것은 더 큰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개방성에 관한 문헌을 읽었음을 압니다. 그들은 이 텍스트들에 호소하고, 내 생각에 그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월슨은 이 *나함*, 즉 회개의 본문이 구약성서에 38번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회개를 가리키며,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를 가리키는 35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회개하신다고 말하는 *나함* 동사인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범주의 본문이 있습니다. 면제 또는 유예를 가져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의 본문은 유예 또는 면제를 초래하는 본문입니다. 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말하는 본문은 세 개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 논의를 시작한 이 부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누그러뜨리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휴식, 면제가 있습니다.

8. 심판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세 가지 본문 하나님의 회개가 심판을 초래하는 본문은 세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세기 6:6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수 -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방금 살펴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노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사울이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심판이 임한 곳은 홍수와 사울 두 곳뿐입니다. 두 곳 모두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은 새로운 약속을 낳습니다. 창세기의 경우에는 노아에게 하신 새로운 약속이 있고, 사무엘에는 사울을 대신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계획과 목적을 취하고 그 심판을 통해 그 계획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목적에 도달하는 방식은 수정됩니다. 대홍수와 사울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말하는 이 본문의 대부분을 보면 면책이나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의 백성, 그들의 기도와 회개에 응답하려는 그의 의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심판을 선언하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기도와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9. 하나님의 회개의 본질에 대하여 나는 이 토론에서 하나님이 회개하신다고

말할 때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 회개하다”가 아니라 “자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말할 때 인간의 회개와 같지는 않지만 둘 다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회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회개할 때 어떤 잘못이나 결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때 그것은 어떤 결점이나 어떤 잘못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회개와 인간의 회개 사이의 유비는 무너지고 아마도 여기에 포함된 것을 이해하는 문제의 일부일 것입니다.

10. 자기 백성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성과 조화시키려 할 때 그것들은 모순되지 않고 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말하는 본문은 그의 백성의 관심과 행동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정적인 추상화가 아닙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발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 말하는 본문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변덕스럽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전략과 전술의 구별 이 주제에 대해 읽은 누군가가 여기에 평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은 더 큰 계획, 궁극적인 목표 및 목적입니다. “전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어진 전쟁에서 전술은 변할 수 있지만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저자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회개와 회개를 전술의 수준에서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변성은 전략적 계획의 수준에서 가능하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배교와 함께 모세가 중재하자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가 제안한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크리스 엘리스가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